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5호 【루체 제25864호】 주제 106(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력사적인 대회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선집단결의의 성패를 이루고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전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회장대회가 열리게 된다.

당세포는 우리 당의 발전기초조직이고 광범한 군중을 당과 결연의 정으로 이어주는 열매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이다. 당세포를 강화하여야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대중적지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고 혁명적전진전반을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갈 수 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명도적 전위자 최상의 정치에서 펼쳐지고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적인 특대사변들로 빛내인 승리의 궁지와 환희가 온 나라에 치달리고있는 속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해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될 것이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난 5년간 당세포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총화하고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당 제7차대회 결정을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절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

지금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전당의 당세포위원장은 우리 당의 당세포 중시사상과 명도를 충실히 받들어 모든 당세포를 수평적사수위의 결정적, 당정책적사수위의 척후대로 더욱

강화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세포를 비롯한 기층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공과 당이 제시한 정책적과업들을 직접 관철하는 집결체이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원의 전조선을 지켜서 우리 당의 기본전투단위이다.》

당세포를 중시하고 강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조하시고 발전시켜오신 주체주의 혁명적당건설의 고귀한 전통이며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는 항구적인 로선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공에 따라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회를 전제없는 규모로 소집하도록 하시고 력사적인 결연에서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1차 전당대회 당원위원회대회를 비롯한 전당적인 대회들에서 기층조직건설의 강령적 지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는 당세포강화발전의 이정표를 마련한 일대 사변이었다. 당세포를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강화하는데 전당강화의 지렛대임을 이끄는 특장적인 당건설사상을 천명하시고 당세포사업

을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갈수록 이룩될 수 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명도성에 전당강화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당의 전투적

위력을 비상히 높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미약적혁신을 일으키고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업적은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은 엄중하며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투쟁과업은 매우 무겁고 방대하다.

우리 당은 부단히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혁명을 새로운 양상으로 고조시키는데서 당세포들의 역할이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세포위원장대회를 통해서 큰 규모로 조직하고, 당세포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위력이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활력이다.

이번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회 대회는 우리 당의 당세포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계기로 된다.

지난 5년간은 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우리 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이 나날 당과 혁명대오가 비상히 강화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가 펼쳐지게 된것은 당세포들의 전투적역할이 있었기때문이다. 당의 유일적명도체계확립은 당세포사업의 생명선이었으며 수령의 유공과 당정책관철은 당세포들의 첫째가는 사명이고 임무였다. 당세포들이 수평적사수위의 전위대가 되고 당을 떠맡드는 초석이 되었기에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정신이 굳건히 고수되고 전당의 사상적지적통일과 조직적단결이 불태워졌으며 다져지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의 강대성과 주체혁명의 쏠기

침 전진은 당세포들만 강화하면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당이 끄떡하지 않으며 혁명이 승승장구하게 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당세포중시사상은 당의 명맥을 이어주는 띠줄기이며 주체혁명위업을 추동하고 떠밀어주는 투쟁의 기지이다. 이번 대회는 당세포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 전당을 강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데서 전체 당세포위원장들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계기로 될 것이다.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회 대회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통이 다져나가는 데서 새로운 이정표로 된다.

지난 5년간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된 승리와 성과들은 결코 어떤 신비한 힘이 가져온것이 아니라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체이다. 대물이 순결하게 계승되고 준엄한 시련속에서 더욱 배태해지는 우리의 일심단결은 대승속에 길이 뿌리박은 당세포들의 활동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광범한 군중을 당과 결연의 정으로 이어주는 열매이 되며 당세포를 위하여 명도자와 원만군인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의 혼연일체가 더욱 공고해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선진적일 힘을 넣고있으며 여기에서 당세포들이 자기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우리 당안에 당조직들이 많지만 군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은 당세포이다. 조선로동당의 강대성과 주체혁명의 쏠기 침 전진은 당세포들만 강화하면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당이 끄떡하지 않으며 혁명이 승승장구하게 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당세포중시사상은 당의 명맥을 이어주는 띠줄기이며 주체혁명위업을 추동하고 떠밀어주는 투쟁의 기지이다. 이번 대회는 당세포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 전당을 강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데서 전체 당세포위원장들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계기로 될 것이다.

심단결전력의 수행여부도 다름아닌 당세포들의 활동에 달려있다. 당세포들이 당의 인력정치, 풍속정치를 받들어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철저히 지향시켜나갈수록 혁명위업을 추동하고 떠밀어주는 투쟁의 기지이다. 이번 대회는 당세포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 전당을 강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데서 전체 당세포위원장들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계기로 될 것이다.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회 대회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방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전민적일심 단결전력으로 새로운 막장을 가하는 데서 분수령으로 된다.

지난 5년간은 우리 당의 결집은 과학적이고 실연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는 화성적이라는것을 남김없이 과시한 군지높은 나날이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로 밀어붙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초선을 억척같이 지켜온 당세포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자강력은 날마다 증대되고 조국땅 그 어디하나 대미약, 대혁신의 불길이 새처럼 타고오르게 되었다. 우리 당 전투기특성에 력해 이로써 거점 총정의 70일정전과 200일정에서의 자랑찬 승전포상과 국강력 강화에서 다방적으로, 면발적으로 이룩된 특기할 대사변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의 상징인 황금산, 황금밭, 황금해의 새 력사속에는 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당세포들의 전투적위력이 깃들여 있다.

지금 미래와 그 추후세대들은 핵 전략사수들을 총동원한 백전백승대발 투쟁을 향하여 야만적인 《세계적의》들의 편이온 조작과 《베르지천 국》에서정권을 벌려면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 미쳐나가고있다. 이것은 멸망으로 몰락해나가는 자들의 최후 발악이며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원만군인의 신념을 더욱 억세게 하여주고있다. 당의 기본전투단위이며 당정책관철의 결사대인 당세포들이 발동되면 못내일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당의 당세포들을 신약같이 붙여들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제끼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우리 당은 전당의 당세포들과 당원들을 굳게 묶고 최후승리를 위한 대담하고 공세적인 작전들을 펼쳐고 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당세포위원장들은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위업을 최전방으로 밀어붙여온 높은 영예와 책임감을 안고 당에서 바라는대로 당세포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명도업적은 우리 당이 영원히 불어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만년제비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당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조선로동당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이어나가기 바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세포중시사상과 명도를 충실히 받들어나가기 바란다.

당세포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전민적사수위의 결집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모든 당조직들

과 당세포위원장들은 오늘의 은엄 당과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당세포위원장들의 대회합을 소집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당세포를 수평적사수위정신으로 단장하여 강령의 전투적조직으로 만드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의 기본전투단위를 맡겨주고 당의 핵심으로 배세워준 우리 당의 높은 정치적신념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당세포강화에 온넉과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

당과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자각하고 당세포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가기 바란다.

대회참가자들은 대회에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당세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높은 방법론을 찾아내야 한다. 좋은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고 결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총화하여 이번 대회기간이 당세포사업교본을 받아오는 배움의 나날로 되게 하여야 한다. 전당의 당세포위원장들은 자신들의 지난 기간 사업경험을 들어주고 대회정신으로 온통히 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심단결의 위력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만났을 과감히 높고나가는 총진군대오의 진열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세포들이 시키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회 대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사회주의의 비명을 향하여 총진군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회장대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 진성

민중대안에게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회장대회 참가자들이 20일 꽃바구니를 진성하였다.

대양영성의 언덕으로 승업한 마음속으로 오르는 대회참가자들은 성스러운 혁명명도의 전기간 비범한 예지와 결연한 명도력으로 특장적인 당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결승불패의 전투적참모부, 백전백승의 강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끝없는 호모심에 힘써서 있었다. 대회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혁명적

건설의 새 력사를 개척하시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바구니를 진성하고 삼가 인사를 드려 있다.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회장대회 참가자들은 결사위원들의 불멸의 당건설 명도업적을 혁명의 만년제비로 불어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따라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위업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결사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오산덕기슭에 굽이치는 그리움의 대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수많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회령혁명사적지 참관

천만민중의 마음이 끓어올랐던 30여만명의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회령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어머니의 탄생은 참으로 수령님을 위한 탄생이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탄생이었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올해엔 30여만명의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회령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회령혁명사적지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으며 그이께서 탄생하신 고향집, 회령혁명사적

관, 땅양나루터 등 어머니의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서 조국과 혁명, 인민일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한 사실

을 들으면서 참관자들은 혁명의 길에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 불꽃을 주의깊게 돌아보고있다. 어머니께서 꽃집에도 못 잊을 정을 고향 회령을 떠나시면서 전후를 잊지 않는 해방된 그날

그리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신 땅양나루터에서 참관자들은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있다.

회령혁명사적지를 돌아본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생애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면서 대를 이어 수령님, 장군님을 누러가는 민족의 크나큰 영광과 긍지에 대하여 가슴깊이 절감하고있다.

또한 수령님사수위의 귀감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우리 운명의 위대한 태양이 서서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충실히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회령혁명사적지를 참관한 해외동포들과 외국인의 몇몇들 한 걸음이 백두산녀장군 회령혁명사적지 방문이후 수령님, 장군님을 누러가는 민족의 크나큰 영광과 긍지에 대하여 가슴깊이 절감하고있다. 또한 수령님사수위의 귀감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우리 운명의 위대한 태양이 서서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충실히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회령혁명사적지를 참관한 해외동포들과 외국인의 몇몇들 한 걸음이 백두산녀장군 회령혁명사적지 방문이후 수령님, 장군님을 누러가는 민족의 크나큰 영광과 긍지에 대하여 가슴깊이 절감하고있다. 또한 수령님사수위의 귀감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우리 운명의 위대한 태양이 서서

우시킴은 오산덕기슭에 굽이치는 그리움의 대하는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절사수위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뚜렷한 발판으로 된다.

본사기자 리남호

김정숙제1중학교개건확장공사 마감단계

평안남도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존엄을 모신 김정숙제1중학교에 대한 개건확장공사가 지금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건설에 참가한 도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학교는 날마다 변모되고있다. 특히 새로 건설되는 체육관과 종합숙식의 내부미감공사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계획했던 날짜까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대량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과학교육의 새 언덕에 전국 각처,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준비사항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념을 받아인고 도당 위원회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김정숙제1중학교를 건국의 본보기로 훌륭히 꾸릴 수

은 목표를 내세웠다. 도의 책임일꾼들은 올해에 수 실거나 되는 중요대상공사를 밀고나가야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김정숙제1중학교개건확장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펴고있었다. 책임일꾼들은 학교를 둘러싸고 돌고돌고 형성안과 설계도를 돌고돌고 검토하고 설계도를 훌륭히 완성하도록 한데 이어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공사에 필요한 수많은 자재들을 확보해나갔다. 이와 함께 도급을 지향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양한 체육활동은 물론 예술 활동과 각종 행사, 종합강의 등을 보장할수 있게 되어있는 체육관건설은 어렵고도 방대하였다. 하지만 공사물 무조건 제기입에 끝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안고 철야근무를 벌여가고 있는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지금 체육관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의 일꾼들은 대단위대회에서 많은 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낼수 있도록 조건보장을 제때에 마련해주면서 전투적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갔다. 김정숙제1중학교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주어진 자재를 안고 건설자들을 뭉쳐 묶는 한편 여러층으로 된 종합숙식 건물도 종전의 체육관을 수백석능력의 종합강의실로 멋들어지게 개건하기 위한 공사에서 입자리를 폭족 내고있다.

도인민위원회에서는 수천명

한편 덕천시, 명산군안의 건설자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수영장을 훌륭히 개건하고있다. 평원군과 숙천군안의 건설자들은 드넓은 구간에 야외학습터를 훌륭히 꾸려놓고 무더운 여름철에도 학생들이 시원한 그늘밑에서 학습할수 있도록 나무 울타를 조성해냈다.

본격군안의 건설자들은 학교 정문을 옮기고 전수실을 특색있게 건설해왔으며 성천군안의 건설자들은 교사부대건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양덕군, 명림군, 성천군과 안주시에서가드백공정에서는 구내도로포장과 체육관비보크포장, 경계석설치, 지리학습기구, 교사원판과 수영장개건을 비롯한 여러 공사들을 성과적으로 계속하였다.

평성합성기초공정에서는 연혁 소재실개건사업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시켜나가고있다. 도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김정숙제1중학교는 전국의 본보기학교로 날을 따라 훌륭하게 변모되어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명훈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혁명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그리움의 12월이다.
주제조선의 영원한 태양을 높이
인아올리시었으며 오늘날도 천만의
대의를 태양을 융유하는 신념과
투지의 길로 고무추동해 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이 나라 북반의 강 두만강가에
자라났으며 오산적기승에서 강도
입체의 의사수에 정정 휘장진
민족수난의 고통을 안고서
그이께서 우리 인민에게
오신 그날부터 100돐의
년일이 새겨졌다.

강용한 인민의 기상 민방에
떨친 위대한 승리의 불꽃이
경건한 마음으로 유서깊은
회벽의 고향집과 대성산
혁명렬사릉을 향하여 삼가
웃겼을 여인이다.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후손
대대에 길이 빛날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위대한 항의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
들의 그리움은 정녕 끊이지
않는다.

위인에 대한 추억은 세월이
흐를수록 강렬하고 숭고한
세상을 결집하여 인민의
열화강은 그리움을 낳
기 마련이다.

백두의 물결은 온갖
복합적모양으로 언제나
나 불타오르는 노을처럼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눈으로 우리의 앞날을
촉촉해 주시는 백두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어머님에 대한 사투리는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이 나라
천만아들 딸들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서 시련을 추억의 노를
저어간다.

그날은 김정숙동지의
탄생 9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은 실로 하찮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날이었다.
삼도만 눈치에서
위대한 수령님
을 처음 뵈옵고
《항으로 위대한
신념을 이룩하여...》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싸우겠어요.
하루를 살아요,
천년을 살아요
영원히 그의 혁명
전사에게 몇몇이
살아 역사에
무쌍하겠어요!》라고
격정을 금치
못하시던 김정숙동지,
그날의 위대한
친위전사의 모습
을 그리보시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안방에는 젊은
그리움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항의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수령님께 바치신
어머님의 충실성은
결대적인 신념이었고
순교적 도덕성이었고
일상적인 생활이었고
어머님의
행생은 수령님
에 대한 충실성이었고
일련된 가장
값있는 한사람이셨다.》

어머님의 위대한
혁명행적을 추억
하시던 때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어머니의
무한한 충정심을
대하여 먼저
생각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참으로 수령님
을 향하여 위대한
친정인 항의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께서 조선
혁명과 주체의
군정선사시에
남기신 업적중
가장 뛰어나고
불멸할 공적이
있다.

무쌍부적에 있어서,
무쌍의 견고성에
있어서
부적없는 항의
혁명무용은
인류사주위업의
운명을 한몸에
제현한 수령님
을 검사승리하는
최대의 사명으로서
내세울 성스러운
업적이었으며
수령의 안방과
관련하여서는
단 하나의 양보다
여러번도
더욱이
부적없는
추억을
삼가
추리할
수 있는
준엄한
진구이다.

백두의 물결을
바쳐서라도
조선의
운명인
사명관동지의
혁명사상을
전진적
유고추하고
수령님의
안방을
지켜드리는
것을
더없이
숭고한
사명으로서,
피부로서
간수하고
이 곁에
항쟁을
강고
다치신
조선의
위대한
장군
김정숙동지!

항의혁명사와
대렬이
성스러운
조

선혁명이
역사적
최대의
공적인
수령님
김정숙
동지께서
위대한
전투를
창시
이 위대한
혁명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
하심은
항의의
녀성영웅
인
김정숙
동지
이시었다.

피로써
개혁을
위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
을
보수하는
것이
혁명적
투쟁의
길이다.
이것이
김정숙
동지의
절대
불변의
신조였다.

이런
신조로
자나깨나,
없나
서나
실감을
부려
우시
었기에
김정숙
동지
께서는
위대한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찾아가
는
임무로,
신념
보수의
우로
여기
고
수령
님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사명부가
들어갈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
《사명부
를
목숨으로
사수하라!》
라고
해치
시며
적들을
무기로
쓰아
놓으신
무용
현상
전투,
사명부가
위한
통선고
지곡으로
가이
드는
적들을
탈고,
사명부의
다른
방향을
통선고
를
탈고
탈리시며
적들에게
승전
통을
주신
이런
대사
하시었다.

사명부가
들어갈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
《사명부
를
목숨으로
사수하라!》
라고
해치
시며
적들을
무기로
쓰아
놓으신
무용
현상
전투,
사명부가
위한
통선고
지곡으로
가이
드는
적들을
탈고,
사명부의
다른
방향을
통선고
를
탈고
탈리시며
적들에게
승전
통을
주신
이런
대사
하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위하여
수령님
의
신념
보수
사업을
목숨으로
지키시었다.

백두산
봉기
준비
사업
을

2017년 남조선 인권 유린 조사 통보

조국통일연구원

2017년은 남조선에서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에 대한 민중들의 지향과 요구가 어느때보다 강렬히 분출한 해였다.

근로대중을 깨, 돼지로 취급하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참혹하게 짓밟는 박근혜정권에 대한 분노와 한겨울의 강추위를 뜨겁게 달구며 급이신 초태태하는 마침내 천하악귀를 잡으려 처하고 《정권》교배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언덕에서 돌아보면 초표민심을 대변한다고 하는 《정권》이 출현하였지만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에서

본본적으로 달라진것이 한 아무것도 없었다.

예속의 울가미를 바짝 조이는 미국의 남강도적정권은 남로청로에서 고집을 역행하는 진미사대와 동족대결정적, 반인민적악정이 의연히 계속되는 속에 남조선인민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도 보정할지 못하고 출몰과 교통속에 몸부림치고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올해 남조선에서 일어난 자못한 반인민적, 반인민적정권을 고발하기 위해 《2017년 남조선인민유린조사통보》를 발표한다.

차를 끌어 동두천시내를 돌아치다가 어리레한 차를 파손시키고 남조선주민 5명을 부상시킨 사건, 4월 1일 오산미공군기지에서 소속되어있는 미군사병이 남조선녀성을 성폭행한 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강령 미제침략군벌치는 미일비대로 일어났고있다.

하지만 피피당국은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가 나라를 매다다 굴욕적인 미국남조선 《정형법》을 구실로 범죄자들이에 대한 수사와 재판권을 포기함으로써 강령자들의 반인민적 악행을 더욱 부채질하고있다.

지난 10월 피피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군벌에 대한 불기소율은 2014년에 58.2%였던것이 매년 증가하여 올해에는 70.7%로 10건중 7건이 불기소처분을 받고있으며 그중 강력범죄불기소율은 81.3%, 마약범죄불기소율은 100%에 이르고있다.

특히 피피당국은 9월 7일 미국의 강압적요구에 굴복하여 경상북도 성주군에 《싸드》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는 농성을 벌여놓고도 모자라 이에 항거해나서는 지역주민들과 종교인들, 각계층 단체 성원들을 8 000여명의 경찰을 내몰아 마구 탄압함으로써 식민주주의적 정권을 남달라 드러내보였다.

피피당국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깊으면 남조선의 한 주민이 《싸드》배치를 규탄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당고 목숨을 끊었는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도대체 어는 나라 땅인지 모르겠다.》, 《죽은 자는 잊으라 죽어가는 없다.》, 《허가받은 인권유린장》이라고 외규하고있다.

피피당국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깊으면 남조선의 한 주민이 《싸드》배치를 규탄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당고 목숨을 끊었는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도대체 어는 나라 땅인지 모르겠다.》, 《죽은 자는 잊으라 죽어가는 없다.》, 《허가받은 인권유린장》이라고 외규하고있다.

피피당국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깊으면 남조선의 한 주민이 《싸드》배치를 규탄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당고 목숨을 끊었는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도대체 어는 나라 땅인지 모르겠다.》, 《죽은 자는 잊으라 죽어가는 없다.》, 《허가받은 인권유린장》이라고 외규하고있다.

피피당국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깊으면 남조선의 한 주민이 《싸드》배치를 규탄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당고 목숨을 끊었는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도대체 어는 나라 땅인지 모르겠다.》, 《죽은 자는 잊으라 죽어가는 없다.》, 《허가받은 인권유린장》이라고 외규하고있다.

피피당국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깊으면 남조선의 한 주민이 《싸드》배치를 규탄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당고 목숨을 끊었는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도대체 어는 나라 땅인지 모르겠다.》, 《죽은 자는 잊으라 죽어가는 없다.》, 《허가받은 인권유린장》이라고 외규하고있다.

미국의 식민지 지배의 희생물이 되어 겪는 비참성

자주권을 상실한 식민주의사회에서 참다운 인권을 바라는것자체가 어불성립이다.

인권기념일만 표본만큼도 없는 강제노동 트럼프의 핵악판정형과 함께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주의적외화정책은 더욱 공포로써였다.

트럼프는 대법원장투쟁을 쓰기 바쁘게 《안보부임승차론》을 내놓고 남조선국립대도 계속 증가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식민주의적외화정책의 희생물이 되어 더욱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게 될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앞날을 예고해주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대소한의 추위속에서도 미제침략군기지거 도한식고있는 지역분에서 미군에 의한 피해조사자료를 발표하고 경상북도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은 《싸드》배치철폐를 촉구하며, 《정권의 발길잡이》와 같은 투쟁을 벌이며 전개하며 반미항쟁을 드높였다.

그러나 미국은 3월 6일 첫 《싸드》장비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데 이어 4월 26일에는 2기의 《싸드》발사대를 비롯한 일부 장비들을 성주 팔도정에 기증배치하는 남강도적정권을 지원없이 진행하였다.

《싸드배치 결사반대》를 외치며 항의해나서는 주민들을 옥중으로 차 바꾸고 떠났는데도 못해 내뿜음을 꺼지 지으며 조종한 양기들에게는 남조선인민들이 한자 놀리처럼 보일뿐이었다.

특히 《정권이 일어나도 조전반대》에서 일어나는것이다 수면에서 죽어도 거기에서 죽는것이라는 죽음을 공명시키며 죽어가는 정권도미에 남조선인민들의 항의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은 소음 피해와 각종 사고로 공포에 떨고있으며 더더없는 살인어 살의 피변들이 참혹하게 창폐되고있다.

최근 피피당국이 극히 줄어서 발표한 통보인민권자의 환경오염상태를 보면 발암물질인 벤젠은 허용수

치보다 671배, 불포화은 7.6배, 에틸벤젠은 6.5배에 달한다.

미국의 식민주의적외화정책으로 인한 남조선인민 《한겨레》는 남조선 미국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남조선의 농가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45%, 돼지고기수입으로 36%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미국의 공세로 농축산업부문에 비상이 걸렸다고 진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저물에게 더욱 유리하게 끌어고이기 위해 제협상을 강박하고있다.

남조선강령 미제침략군에 의한 살인과 강간, 폭행과 강탈 등 온갖 반인민범죄에도 계속 증가하고있다.

지난 2월 3일 미2사단의 불발나타기 때문에 술을 적히는 상태에서

남조선인민들의 《정권》교배이후 각계층 인민들은 박근혜정권의 미제침략군의 희생물이 된 항시수도를 대한 석방, 전교조에 대한 범죄로 철폐 등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회복을 강력히 주장해나섰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사회 각계층의 전교조합법화요구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는 보수계당의 꾀변을 되받아우며 반대해나섰고 항시수적방요구에 대해서는 《내각기시사》는 할수 없다.》, 《보수가 박근혜정부를 들고나올수 있다.》는 낯도대끼같은 주장을 하며 외면하고있다.

그러하여 박근혜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된 전 총합전보당의 법, 민주로용 위헌장을 비롯한 많은 항시수들이 옥중고초를 겪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의 희생물이 된 항시수들이 박근혜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하는 기상천외한 현실이 빚어지고있다.》며 개헌을 금지 못해하고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남조선당국이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며 시위자들을 대한 과포악압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지난 8월 2일 피피당국은 광복문에서 정리해고현제, 비정규직철폐, 로동3권쟁취를 요구하는 로동자들

남조선당국의 과포악압에 항거하여 구속된 인민들은 《피해자, 박근혜에게도 찾아볼수 없는 강경태도》, 《날이 갈수록 현 정권의 낯이 바짝치면 드러나고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생은 더욱더 비참하다.

남조선당국은 집권하자마자 《100대국정당》을 짜놓을 내용과 입자리대들기정책이나, 최저임금인상공약이나 같은 온갖 장미빛공약들을 민심을 유혹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것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맹장적비판》, 《말뭉치가 없는 빈껍데기정책》으로 사회 각계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11월 피피당국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에서 정교조로동자와 비정규직로동자의 임금격차가 날이 갈수록 두배 이상으로 뛰어올랐으며 민주적차 또한 심화되어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남조선당국은 입자리문제해결을 《공약 1호》로 내세웠지만 남조선에서 실업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6만 5 000명이나 늘어났으며 청년실업률은 23.4%로서 역대 최악이었던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공기와

남조선당국의 과포악압에 항거하여 구속된 인민들은 《피해자, 박근혜에게도 찾아볼수 없는 강경태도》, 《날이 갈수록 현 정권의 낯이 바짝치면 드러나고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생은 더욱더 비참하다.

남조선당국은 집권하자마자 《100대국정당》을 짜놓을 내용과 입자리대들기정책이나, 최저임금인상공약이나 같은 온갖 장미빛공약들을 민심을 유혹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것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맹장적비판》, 《말뭉치가 없는 빈껍데기정책》으로 사회 각계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11월 피피당국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에서 정교조로동자와 비정규직로동자의 임금격차가 날이 갈수록 두배 이상으로 뛰어올랐으며 민주적차 또한 심화되어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남조선당국은 입자리문제해결을 《공약 1호》로 내세웠지만 남조선에서 실업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6만 5 000명이나 늘어났으며 청년실업률은 23.4%로서 역대 최악이었던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공기와

남조선당국의 과포악압에 항거하여 구속된 인민들은 《피해자, 박근혜에게도 찾아볼수 없는 강경태도》, 《날이 갈수록 현 정권의 낯이 바짝치면 드러나고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생은 더욱더 비참하다.

남조선당국은 집권하자마자 《100대국정당》을 짜놓을 내용과 입자리대들기정책이나, 최저임금인상공약이나 같은 온갖 장미빛공약들을 민심을 유혹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것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맹장적비판》, 《말뭉치가 없는 빈껍데기정책》으로 사회 각계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11월 피피당국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에서 정교조로동자와 비정규직로동자의 임금격차가 날이 갈수록 두배 이상으로 뛰어올랐으며 민주적차 또한 심화되어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남조선당국은 입자리문제해결을 《공약 1호》로 내세웠지만 남조선에서 실업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6만 5 000명이나 늘어났으며 청년실업률은 23.4%로서 역대 최악이었던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공기와

남조선당국의 과포악압에 항거하여 구속된 인민들은 《피해자, 박근혜에게도 찾아볼수 없는 강경태도》, 《날이 갈수록 현 정권의 낯이 바짝치면 드러나고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생은 더욱더 비참하다.

남조선당국은 집권하자마자 《100대국정당》을 짜놓을 내용과 입자리대들기정책이나, 최저임금인상공약이나 같은 온갖 장미빛공약들을 민심을 유혹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것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맹장적비판》, 《말뭉치가 없는 빈껍데기정책》으로 사회 각계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11월 피피당국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에서 정교조로동자와 비정규직로동자의 임금격차가 날이 갈수록 두배 이상으로 뛰어올랐으며 민주적차 또한 심화되어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남조선당국은 입자리문제해결을 《공약 1호》로 내세웠지만 남조선에서 실업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6만 5 000명이나 늘어났으며 청년실업률은 23.4%로서 역대 최악이었던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공기와

동족대결의 칼바람에 황폐화되는 인권

남조선에서 광범하는 동족대결의 칼바람에 참혹한 인권유린을 동반하였다.

대우기 최악의 단계에서 약탈하게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적에 추종한 피피당국의 대북대결적당면으로 하여 인권탄압범죄도 극도로 말하고있다.

피피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책변을 보일것처럼 너스레를 떨며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진보단체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치참하게 말한 인권과 민주주의회복을 위해 《정부》가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면서 피피보수계당의 대결정적의 희생물이 된 김철희녀성과 주미 녀성종업원들의 즉시적인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피당국은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가 될까봐 이별수 없이 송환운동을 한다.》며 송환을 요구하는 김철희녀성의 심정을 마구 탄압하였는가 하면 우리 녀성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사에 따른 탈북》이라는 의견서를 시인사회내각들에게 써지키 보내는 농성을 벌리다 못해 그들을 남조선에 완전히 돌려보내기 위한 그 두손 《결혼》이라는 새로운 모략극을 무기는 헌인공노할 계묘탄쟁까지 저질렀다.

피피당국이 핵추진 부두와 자식을 갈라놓고 협육들을 생리대시킨 보수계당의 반인민적범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두손 《인도주의》를 운운하며 《미안기회상봉》에 대해 떠들었다는 실로 파멸적인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을 무참히 유린 말살하고있다.

남편친지를 밝히는 초보의 기대 한 무대에서 최후명말을 예감한 피피보수계당은 핵을 수습하기 위해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의를 지향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을 《전북파괴》, 《종북세력》으로 몰아 남산하였다.

피피들이 새해벽두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된 《리적보론》을 편대하였다는 혐의로 《로동자의 책》 대외 리적영에 대한 구속농을

동족대결의 칼바람에 황폐화되는 인권

남조선에서 광범하는 동족대결의 칼바람에 참혹한 인권유린을 동반하였다.

대우기 최악의 단계에서 약탈하게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적에 추종한 피피당국의 대북대결적당면으로 하여 인권탄압범죄도 극도로 말하고있다.

피피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책변을 보일것처럼 너스레를 떨며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진보단체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치참하게 말한 인권과 민주주의회복을 위해 《정부》가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면서 피피보수계당의 대결정적의 희생물이 된 김철희녀성과 주미 녀성종업원들의 즉시적인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피당국은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가 될까봐 이별수 없이 송환운동을 한다.》며 송환을 요구하는 김철희녀성의 심정을 마구 탄압하였는가 하면 우리 녀성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사에 따른 탈북》이라는 의견서를 시인사회내각들에게 써지키 보내는 농성을 벌리다 못해 그들을 남조선에 완전히 돌려보내기 위한 그 두손 《결혼》이라는 새로운 모략극을 무기는 헌인공노할 계묘탄쟁까지 저질렀다.

피피당국이 핵추진 부두와 자식을 갈라놓고 협육들을 생리대시킨 보수계당의 반인민적범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두손 《인도주의》를 운운하며 《미안기회상봉》에 대해 떠들었다는 실로 파멸적인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을 무참히 유린 말살하고있다.

남편친지를 밝히는 초보의 기대 한 무대에서 최후명말을 예감한 피피보수계당은 핵을 수습하기 위해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의를 지향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을 《전북파괴》, 《종북세력》으로 몰아 남산하였다.

피피들이 새해벽두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된 《리적보론》을 편대하였다는 혐의로 《로동자의 책》 대외 리적영에 대한 구속농을

인권교살의 축소 식민주의괴뢰군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즉시적인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피당국은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가 될까봐 이별수 없이 송환운동을 한다.》며 송환을 요구하는 김철희녀성의 심정을 마구 탄압하였는가 하면 우리 녀성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사에 따른 탈북》이라는 의견서를 시인사회내각들에게 써지키 보내는 농성을 벌리다 못해 그들을 남조선에 완전히 돌려보내기 위한 그 두손 《결혼》이라는 새로운 모략극을 무기는 헌인공노할 계묘탄쟁까지 저질렀다.

피피당국이 핵추진 부두와 자식을 갈라놓고 협육들을 생리대시킨 보수계당의 반인민적범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두손 《인도주의》를 운운하며 《미안기회상봉》에 대해 떠들었다는 실로 파멸적인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을 무참히 유린 말살하고있다.

남편친지를 밝히는 초보의 기대 한 무대에서 최후명말을 예감한 피피보수계당은 핵을 수습하기 위해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의를 지향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을 《전북파괴》, 《종북세력》으로 몰아 남산하였다.

피피들이 새해벽두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된 《리적보론》을 편대하였다는 혐의로 《로동자의 책》 대외 리적영에 대한 구속농을

인권교살의 축소 식민주의괴뢰군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즉시적인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피당국은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가 될까봐 이별수 없이 송환운동을 한다.》며 송환을 요구하는 김철희녀성의 심정을 마구 탄압하였는가 하면 우리 녀성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사에 따른 탈북》이라는 의견서를 시인사회내각들에게 써지키 보내는 농성을 벌리다 못해 그들을 남조선에 완전히 돌려보내기 위한 그 두손 《결혼》이라는 새로운 모략극을 무기는 헌인공노할 계묘탄쟁까지 저질렀다.

피피당국이 핵추진 부두와 자식을 갈라놓고 협육들을 생리대시킨 보수계당의 반인민적범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두손 《인도주의》를 운운하며 《미안기회상봉》에 대해 떠들었다는 실로 파멸적인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을 무참히 유린 말살하고있다.

남편친지를 밝히는 초보의 기대 한 무대에서 최후명말을 예감한 피피보수계당은 핵을 수습하기 위해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의를 지향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을 《전북파괴》, 《종북세력》으로 몰아 남산하였다.

피피들이 새해벽두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된 《리적보론》을 편대하였다는 혐의로 《로동자의 책》 대외 리적영에 대한 구속농을

인권교살의 축소 식민주의괴뢰군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즉시적인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피당국은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가 될까봐 이별수 없이 송환운동을 한다.》며 송환을 요구하는 김철희녀성의 심정을 마구 탄압하였는가 하면 우리 녀성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사에 따른 탈북》이라는 의견서를 시인사회내각들에게 써지키 보내는 농성을 벌리다 못해 그들을 남조선에 완전히 돌려보내기 위한 그 두손 《결혼》이라는 새로운 모략극을 무기는 헌인공노할 계묘탄쟁까지 저질렀다.

피피당국이 핵추진 부두와 자식을 갈라놓고 협육들을 생리대시킨 보수계당의 반인민적범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두손 《인도주의》를 운운하며 《미안기회상봉》에 대해 떠들었다는 실로 파멸적인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을 무참히 유린 말살하고있다.

남편친지를 밝히는 초보의 기대 한 무대에서 최후명말을 예감한 피피보수계당은 핵을 수습하기 위해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의를 지향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을 《전북파괴》, 《종북세력》으로 몰아 남산하였다.

피피들이 새해벽두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된 《리적보론》을 편대하였다는 혐의로 《로동자의 책》 대외 리적영에 대한 구속농을

인권교살의 축소 식민주의괴뢰군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즉시적인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피당국은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가 될까봐 이별수 없이 송환운동을 한다.》며 송환을 요구하는 김철희녀성의 심정을 마구 탄압하였는가 하면 우리 녀성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사에 따른 탈북》이라는 의견서를 시인사회내각들에게 써지키 보내는 농성을 벌리다 못해 그들을 남조선에 완전히 돌려보내기 위한 그 두손 《결혼》이라는 새로운 모략극을 무기는 헌인공노할 계묘탄쟁까지 저질렀다.

피피당국이 핵추진 부두와 자식을 갈라놓고 협육들을 생리대시킨 보수계당의 반인민적범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두손 《인도주의》를 운운하며 《미안기회상봉》에 대해 떠들었다는 실로 파멸적인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을 무참히 유린 말살하고있다.

남편친지를 밝히는 초보의 기대 한 무대에서 최후명말을 예감한 피피보수계당은 핵을 수습하기 위해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의를 지향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을 《전북파괴》, 《종북세력》으로 몰아 남산하였다.

피피들이 새해벽두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된 《리적보론》을 편대하였다는 혐의로 《로동자의 책》 대외 리적영에 대한 구속농을

인권교살의 축소 식민주의괴뢰군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즉시적인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피당국은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가 될까봐 이별수 없이 송환운동을 한다.》며 송환을 요구하는 김철희녀성의 심정을 마구 탄압하였는가 하면 우리 녀성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사에 따른 탈북》이라는 의견서를 시인사회내각들에게 써지키 보내는 농성을 벌리다 못해 그들을 남조선에 완전히 돌려보내기 위한 그 두손 《결혼》이라는 새로운 모략극을 무기는 헌인공노할 계묘탄쟁까지 저질렀다.

피피당국이 핵추진 부두와 자식을 갈라놓고 협육들을 생리대시킨 보수계당의 반인민적범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두손 《인도주의》를 운운하며 《미안기회상봉》에 대해 떠들었다는 실로 파멸적인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을 무참히 유린 말살하고있다.

남편친지를 밝히는 초보의 기대 한 무대에서 최후명말을 예감한 피피보수계당은 핵을 수습하기 위해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의를 지향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을 《전북파괴》, 《종북세력》으로 몰아 남산하였다.

피피들이 새해벽두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된 《리적보론》을 편대하였다는 혐의로 《로동자의 책》 대외 리적영에 대한 구속농을

총련말살을 노린 용납 못할 파쇼폭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범죄적외화정책이 강행되는 것 때를 같이하여 총련과 세일조선인민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과 박해가 최악의 단계에 이르렀고있다.

보도연비와 같이 지난 1 7일 일본정권당국은 총련 공장보합추진회사가 판리하는 은행구에서 사적인 예금 빼돌린 은행원 한명이 있다고 하면서 본사와 1 개의 지사를 모두 강압추진회사가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집을 일제히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보도 앞서서는 교토부와 가나가와, 야마구치, 시마네, 니이가타현의 경찰들로 무장한 합동수사본부와 일본인사회의 외환위협행위를 조사한다고 떠들며 제일본조선인민총투회사무소와 전총련도쿄도 시브세지부 위원장의 집을 강제로 수색하였다.

총련의 산하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무지막한 강제수색농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또 하나의 엄청난 도전이며 총련말살을 노린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총련관련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일본정권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수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는 불법무법적 과포적폭거이다.

총련 공장보합추진회사와 제일본조선구립회 불 비롯한 총련관련기관들의 활동은 정당하고 합법적인것으로서 문제시될것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일본정권당국은 그 무슨 《경제집행법》, 《외환법》이니 하는 당시없는 구실수를 내대고 무자극한 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수색농을 밀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수색명령에 《용의자가 불명확》이라고 핑기하고서 수색대장과 범위를 저물어내도록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이번 강제수색에서 《법외행위》와 관련한 사소한 증거물도 걸어서 못하였다. 이것은 이번 강제수색농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위협적인 과포적폭거가 하는것을 명백히 폭로해주고있다.

실제로 총련을 대상으로 한 일본반동들의 무지막한 강제수색농은 그 무슨 《법외행위》 조사를 위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총련을 의도적으로 박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계획적인 정치체

총련말살을 노린 용납 못할 파쇼폭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범죄적외화정책이 강행되는 것 때를 같이하여 총련과 세일조선인민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과 박해가 최악의 단계에 이르렀고있다.

보도연비와 같이 지난 1 7일 일본정권당국은 총련 공장보합추진회사가 판리하는 은행구에서 사적인 예금 빼돌린 은행원 한명이 있다고 하면서 본사와 1 개의 지사를 모두 강압추진회사가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집을 일제히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보도 앞서서는 교토부와 가나가와, 야마구치, 시마네, 니이가타현의 경찰들로 무장한 합동수사본부와 일본인사회의 외환위협행위를 조사한다고 떠들며 제일본조선인민총투회사무소와 전총련도쿄도 시브세지부 위원장의 집을 강제로 수색하였다.

총련의 산하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무지막한 강제수색농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또 하나의 엄청난 도전이며 총련말살을 노린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총련관련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일본정권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수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는 불법무법적 과포적폭거이다.

총련 공장보합추진회사와 제일본조선구립회 불 비롯한 총련관련기관들의 활동은 정당하고 합법적인것으로서 문제시될것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일본정권당국은 그 무슨 《경제집행법》, 《외환법》이니 하는 당시없는 구실수를 내대고 무자극한 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수색농을 밀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수색명령에 《용의자가 불명확》이라고 핑기하고서 수색대장과 범위를 저물어내도록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이번 강제수색에서 《법외행위》와 관련한 사소한 증거물도 걸어서 못하였다. 이것은 이번 강제수색농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위협적인 과포적폭거가 하는것을 명백히 폭로해주고있다.

실제로 총련을 대상으로 한 일본반동들의 무지막한 강제수색농은 그 무슨 《법외행위》 조사를 위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총련을 의도적으로 박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계획적인 정치체

총련말살을 노린 용납 못할 파쇼폭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범죄적외화정책이 강행되는 것 때를 같이하여 총련과 세일조선인민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과 박해가 최악의 단계에 이르렀고있다.

보도연비와 같이 지난 1 7일 일본정권당국은 총련 공장보합추진회사가 판리하는 은행구에서 사적인 예금 빼돌린 은행원 한명이 있다고 하면서 본사와 1 개의 지사를 모두 강압추진회사가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집을 일제히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보도 앞서서는 교토부와 가나가와, 야마구치, 시마네, 니이가타현의 경찰들로 무장한 합동수사본부와 일본인사회의 외환위협행위를 조사한다고 떠들며 제일본조선인민총투회사무소와 전총련도쿄도 시브세지부 위원장의 집을 강제로 수색하였다.

총련의 산하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무지막한 강제수색농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또 하나의 엄청난 도전이며 총련말살을 노린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총련관련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일본정권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수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는 불법무법적 과포적폭거이다.

총련 공장보합추진회사와 제일본조선구립회 불 비롯한 총련관련기관들의 활동은 정당하고 합법적인것으로서 문제시될것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일본정권당국은 그 무슨 《경제집행법》, 《외환법》이니 하는 당시없는 구실수를 내대고 무자극한 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수색농을 밀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수색명령에 《용의자가 불명확》이라고 핑기하고서 수색대장과 범위를 저물어내도록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이번 강제수색에서 《법외행위》와 관련한 사소한 증거물도 걸어서 못하였다. 이것은 이번 강제수색농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위협적인 과포적폭거가 하는것을 명백히 폭로해주고있다.

실제로 총련을 대상으로 한 일본반동들의 무지막한 강제수색농은 그 무슨 《법외행위》 조사를 위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총련을 의도적으로 박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계획적인 정치체

총련말살을 노린 용납 못할 파쇼폭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범죄적외화정책이 강행되는 것 때를 같이하여 총련과 세일조선인민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과 박해가 최악의 단계에 이르렀고있다.

보도연비와 같이 지난 1 7일 일본정권당국은 총련 공장보합추진회사가 판리하는 은행구에서 사적인 예금 빼돌린 은행원 한명이 있다고 하면서 본사와 1 개의 지사를 모두 강압추진회사가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집을 일제히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보도 앞서서는 교토부와 가나가와, 야마구치, 시마네, 니이가타현의 경찰들로 무장한 합동수사본부와 일본인사회의 외환위협행위를 조사한다고 떠들며 제일본조선인민총투회사무소와 전총련도쿄도 시브세지부 위원장의 집을 강제로 수색하였다.

총련의 산하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무지막한 강제수색농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또 하나의 엄청난 도전이며 총련말살을 노린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총련관련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일본정권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수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는 불법무법적 과포적폭거이다.

총련 공장보합추진회사와 제일본조선구립회 불 비롯한 총련관련기관들의 활동은 정당하고 합법적인것으로서 문제시될것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일본정권당국은 그 무슨 《경제집행법》, 《외환법》이니 하는 당시없는 구실수를 내대고 무자극한 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수색농을 밀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수색명령에 《용의자가 불명확》이라고 핑기하고서 수색대장과 범위를 저물어내도록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이번 강제수색에서 《법외행위》와 관련한 사소한 증거물도 걸어서 못하였다. 이것은 이번 강제수색농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위협적인 과포적폭거가 하는것을 명백히 폭로해주고있다.

실제로 총련을 대상으로 한 일본반동들의 무지막한 강제수색농은 그 무슨 《법외행위》 조사를 위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총련을 의도적으로 박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계획적인 정치체

총련말살을 노린 용납 못할 파쇼폭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범죄적외화정책이 강행되는 것 때를 같이하여 총련과 세일조선인민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과 박해가 최악의 단계에 이르렀고있다.

보도연비와 같이 지난 1 7일 일본정권당국은 총련 공장보합추진회사가 판리하는 은행구에서 사적인 예금 빼돌린 은행원 한명이 있다고 하면서 본사와 1 개의 지사를 모두 강압추진회사가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집을 일제히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보도 앞서서는 교토부와 가나가와, 야마구치, 시마네, 니이가타현의 경찰들로 무장한 합동수사본부와 일본인사회의 외환위협행위를 조사한다고 떠들며 제일본조선인민총투회사무소와 전총련도쿄도 시브세지부 위원장의 집을 강제로 수색하였다.

총련의 산하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무지막한 강제수색농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또 하나의 엄청난 도전이며 총련말살을 노린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총련관련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일본정권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수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는 불법무법적 과포적폭거이다.

총련 공장보합추진회사와 제일본조선구립회 불 비롯한 총련관련기관들의 활동은 정당하고 합법적인것으로서 문제시될것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일본정권당국은 그 무슨 《경제집행법》, 《외환법》이니 하는 당시없는 구실수를 내대고 무자극한 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수색농을 밀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수색명령에 《용의자가 불명확》이라고 핑기하고서 수색대장과 범위를 저물어내도록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이번 강제수색에서 《법외행위》와 관련한 사소한 증거물도 걸어서 못하였다. 이것은 이번 강제수색농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위협적인 과포적폭거가 하는것을 명백히 폭로해주고있다.

실제로 총련을 대상으로 한 일본반동들의 무지막한 강제수색농은 그 무슨 《법외행위》 조사를 위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총련을 의도적으로 박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계획적인 정치체

총련말살을 노린 용납 못할 파쇼폭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범죄적외화정책이 강행되는 것 때를 같이하여 총련과 세일조선인민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과 박해가 최악의 단계에 이르렀고있다.

보도연비와 같이 지난 1 7일 일본정권당국은 총련 공장보합추진회사가 판리하는 은행구에서 사적인 예금 빼돌린 은행원 한명이 있다고 하면서 본사와 1 개의 지사를 모두 강압추진회사가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집을 일제히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보도 앞서서는 교토부와 가나가와, 야마구치, 시마네, 니이가타현의 경찰들로 무장한 합동수사본부와 일본인사회의 외환위협행위를 조사한다고 떠들며 제일본조선인민총투회사무소와 전총련도쿄도 시브세지부 위원장의 집을 강제로 수색하였다.

총련의 산하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무지막한 강제수색농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또 하나의 엄청난 도전이며 총련말살을 노린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총련관련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일본정권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수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는 불법무법적 과포적폭거이다.

총련 공장보합추진회사와 제일본조선구립회 불 비롯한 총련관련기관들의 활동은 정당하고 합법적인것으로서 문제시될것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일본정권당국은 그 무슨 《경제집행법》, 《외환법》이니 하는 당시없는 구실수를 내대고 무자극한 기관들과 일꾼들에 대한 수색농을 밀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수색명령에 《용의자가 불명확》이라고 핑기하고서 수색대장과 범위를 저물어내도록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이번 강제수색에서 《법외행위》와 관련한 사소한 증거물도 걸어서 못하였다. 이것은 이번 강제수색농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위협적인 과포적폭거가 하는것을 명백히 폭로해주고있다.

실제로 총련을 대상으로 한 일본반동들의 무지막한 강제수색농은 그 무슨 《법외행위》 조사를 위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총련을 의도적으로 박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계획적인 정치체

총련말살을 노린 용납 못할 파쇼폭거

